

인간 중심 간호의 영향요인

장희선*, 김영이**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e-mail:yakim@jejunu.ac.kr

Influencing Factors of Person-Centered Nursing

Heesun Jang*, Young A Kim**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p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간호사의 인간 중심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일 지역에 소재한 2개 병원의 간호사 191명을 편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의 90.1%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9.9%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간 중심 간호는 공감 역량($r=.58, p<.001$), 문화적 역량($r=.62, p<.001$),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r=.63,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간 중심 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beta=.29, p=.001$), 공감 역량($\beta=.27, p<.001$), 문화적 역량($\beta=.20, p=.024$), 일반적 특성 중 주간 근무($\beta=.12, p=.031$) 순이었다. 본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47.9%였다($F=48.0, p<.001$).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인간 중심 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 문화적, 조직적 요인을 포함하여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특히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인간 중심 간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1. 서론

현대 사회의 인구 통계적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 증가로 인해, 간호사는 모든 환자에게 평등하고 개별화된 인간 중심 간호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1,2]. 이를 위해 환자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공감 역량[3], 타 문화를 수용하고 협력하는 문화적 역량[4], 그리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5]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역량들은 환자 만족도와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소통은 치료적 관계의 기반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인간 중심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 교육 및 실무에서 인간 중심 간호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사의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인간 중심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개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임상 경력 3개월 이상의 간호사 191명이었고, 수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일반적 특성 10문항, 공감 역량 17문항, 문화적 역량 35문항,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40문항, 인간중심 간호 2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본 연구 결과, 대상자 191명(여성 90.1%)의 평균 임상 경력은 8.89년이었으며, 주요 변수 중 인간 중심 간호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하위 영역에서는 존중, 민감성, 평등성 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 총 임상 경력, 외국인 친구 유무, 근무 형태 등이 주요 변수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 중심 간호는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인간 중심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 주간 근무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는 전체의 4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communication”, *Nursing Forum*, Vol. 56, No. 4, pp. 993–999, 2021.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이 인간 중심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간 중심 간호 점수는 평균 4.02점으로 선행연구들보다 다소 높았으며, 공감 역량(3.68점), 문화적 역량(3.41점),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3.42점) 또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인간 중심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 주간 근무 순으로 확인되었다. 문화 간 의사소통은 환자와의 신뢰 구축 및 치료 결과 향상의 핵심이며, 공감 역량은 인간 중심적 돌봄 실천을 위한 필수적인 개인적 자질이다. 또한,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 자료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근무 형태의 경우, 주간 근무자가 교대 근무자보다 일정한 근무 환경 덕분에 환자와 더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간 중심 간호를 증진하기 위해 간호사의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적·문화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 표집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간호사의 소통 능력을 돕고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교육프로그램 및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Červený, Martin, et al., “Methods of increas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es working in clinical practice: A scoping review of literature 2011-2021”,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3, pp. 936181, 2022.
- [2] Jabeen, Taira, and Austyn Snowden, “Can mental healthcare for Muslim patients be person-centred without consideration of religious identity? A concurrent analysi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64, pp. 103449, 2022.
- [3] Zamanzadeh, Vahid, et al., “Compassionate care in nursing: A hybrid concept analysis”, *Hayat*, Vol. 22, No. 4, pp. 362–380, 2017.
- [4] Nair, Lakshmi, and Oluwaseun A. Adetayo, “Cultural competence and ethnic diversity in healthcare”,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Global Open*, Vol. 7, No. 5, e2219, 2019.
- [5] Mosed, Hameedah, Madison Periord, and Meriam Caboral-Stevens, “A concept analysis of intercultural